부모자녀건강학회지 제14권, 제1호, 2011년 6월
Korean Parent Child Health J Vol. 14, No. 1, 36-44, June, 2011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임신, 출산 및 영유아 양육 경험

방경숙[1] · 허보윤[2]

[1]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 간호과학연구소, [2]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Foreign Immigrant Mothers' Experiences of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 Rearing

Bang, Kyung-Sook[1] · Huh, Bo-Yun[2]

[1]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2]Researcher,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foreign immigrant mothers' experiences of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 rearing. **Methods:** Ten married female migrants were selected by a purposive and snowball sampling method. Data were collected during the period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09 by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and all interviews were audio-taped and transcribed verbatim. **Results:** Ten categories were induced: In pregnancy and childbirth domain, social support-request help to their own parents, social support-depending on husband and mother's in law, Enduring emesis-gravidarum in strange environment were extracted. In Chid-rearing domain, child-rearing overburden, lack of self-confidence on maternal role, child-rearing difficulties due to language barrier, lack of information and education on child-rearing, lack of accessibility to public health care services, expectation of child's assimilation in Korea, financial strain in child-rearing.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basic knowledge regarding married female migrants' experiences related to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 rearing. The findings of the study will help health professionals designing effective interventions for married female migrants with difficulties related to child care, parenting, rearing.

Key Words: Marriage, Migrants, Cultural diversity, Child rearing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2010년 새로 결혼한 부부 중 국제결혼의 비율은 전체의 10.5%이며(Statistics Korea, 2011) 특히 90년에 전체의 0.2%에 불과하던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해마다 증가하여 2007년에는 29,140건으로 전체 국제결혼 건수의 75.7%를 차지하게 되었다. 아울러 농촌 지역 남성이 외국여성과 결혼하는 비율은 더욱 높아 이제 다문화 가족은 한국가족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단계에 와있다. 따라서 이들 다문화 가족 특성에 대한 이해와 건강관리의 문제는 간호학문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요구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은 결혼이라는 발달적 스트레스와 이민이라는 환경적 스트레스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며, 특히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도 되기 전에 엄마라는 새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임산부들은 부담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여성들과 결혼한 국내 남성들의 상당수는 빈곤, 저

주요어: 결혼, 이민자, 문화의 다양성, 영유아 양육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Bang, Kyung-Sook,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28 Yeongeon-dong, Jongno-gu, Seoul 110-799, Korea.
Tel: 82-2-740-8819, Fax: 82-2-3789-1597, E-mail: ksbang@snu.ac.kr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 연구의 일부임 (2009-0065336).
투고일: 2011년 5월 30일 / 심사완료일: 2011년 6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20일

소득층, 장애인, 혼기를 넘긴 고령자 등이 많으며 또한 이 여성들을 동등한 배우자로 대우하지 않고 가정 폭력, 인권침해, 경제활동을 위한 노동 강요 등으로 내모는 경우가 많아 결혼이민여성은 기존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며(Kim, 2006), 따라서 산후우울에도 매우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이민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남편과의 의사소통문제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결혼적응도가 떨어질 위험이 높고(Yang, 2006), 친정이 멀리 떨어져있어 가족의 지지적 환경이 부족하므로 산전관리부터의 어려움과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산모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서울거주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 중 26.9%가 우울을 가진 것으로 분류되었다는 연구가 있어(Yang & Kim, 2006) 산후우울의 비율도 국내의 일반 산모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의 경우에도 이민자의 어려움은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민자에 대한 간호나 산전관리가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외국 선진국에서조차도 이민 온 임부들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기대하는 만큼의 산전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atz & Gagnon, 2002). Stuchbery, Matthey와 Barnett (1998)는 베트남, 아랍인 등 미국으로 온 이민여성의 경우 산후우울의 비율이 더 높으며, 특히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고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산모에게서는 산후우울의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고 보고하였다. 캐나다에서도 이민 산모의 경우 사회적 지지, 건강상태,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여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Swaord, Watt, & Krueger, 2006). 최근 아시아계 여성의 다른 아시아 나라로의 결혼이주는 매우 일반화되었으나 이들 결혼이민자 여성의 임신, 출산과 양육 경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련 연구는 몇 편에 불과하여(Chung, 2010; Koh & Koh, 2009)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결혼이민자의 본국인 중국과 베트남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과 양육경험을 파악해봄으로써 이들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서 결혼이민을 온 다문화 가정 여성의 임신, 출산 및 양육 관련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는 것이다.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 아이를 임신, 분만했을 때나 하고나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생후 1년 동안 아기를 키우는데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었으며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 아기 키우기와 관련하여 알고 싶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기 양육을 위해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임신, 산후조리, 양육과 관련하여 모국과 어떤 점이 많이 다릅니까? 한국적인 양육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국의 양육방법으로 아기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임신, 출산 및 영유아 양육 경험을 조사하기 위하여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Downe-Wamboldt (1992)의 내용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남자와 결혼하여 수원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으로 의도표출(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표출(snowball sampling) 방식을 이용하여 베트남 여성 5명, 중국인 여성 5명이 선정되었다. 모집대상자 포함기준은 하나 이상의 자녀가 있고,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자로 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먼저 연구자가 소속되었던 기관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of Board)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구수행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AJIRB-MED-SUR-09-138).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어머니의 명단을 확보한 후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연구자를 소개하고 연구의 목적과 개인의 비밀과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한 후 연구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결혼이민자 여성만을 대상자로 하였다. 면담에 들

어가기에 앞서 이들로부터 모두 서면으로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연구자는 질적 연구에 대한 특강과 대학원 과정에서의 질적 연구방법론 이수를 통해 질적 연구에 대한 준비를 갖추었으며, 교과 과정 내에서 질적 연구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다. 아직 질적 연구자로서의 경험은 미약하나 질적 연구 경험자로부터 내용을 검토 받았다. 본 연구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였으며,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와의 개별연락을 통해 연구참여자 집에서 실시하였다. 면접 시 소요된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 30분 사이였으며 필요에 따라 참여자별 1, 2회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과의 면담은 반 구조화된 면담지를 근거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 경험과 관련한 내용을 질문하였다.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고 충분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여자의 말 중 이해가 안 되거나 설명이 필요로 되는 부분은 재질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녹음된 면담내용은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녹취하였으며, 녹취는 평균 2~5시간이 소요되었다. 작성된 녹취록을 연구자들이 반복해서 읽으면서 핵심내용을 파악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면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를 하였다.

4. 자료분석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Downe-Wamboldt (1992)의 내용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면담을 통한 자료를 정리해 가는 질적 연구의 방법은 다양한데, 내용분석방법은 개인이나 집단의 심리적 상태, 문화적 패턴과 신념을 나타내고 의사소통한 내용의 주제와 특성을 기술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추천되고 있다(Downe-Wamboldt, 1992).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임신, 분만과 양육 경험의 공통 요소들을 발견하고자 하였기에 내용분석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먼저 녹음을 통해서 수집된 면담 자료는 면담이 끝난 후 즉시 면담에 참여하였던 연구조원이 대상자의 말 그대로 옮겨 적었다. 연구자가 수집된 원 자료를 수차례 반복해서 읽으면서 의미 있는 구절 및 문장을 주의 깊게 살피며 모든 구문과 문장을 분석단위로 하여 의미 있는 진술에 표시하였다. 다음 의미 있는 표현 중에서 유사한 내용을 분류하고 공통된 속성을 확인하였으며 확인된 속성의 범주를 규명하였다. 자료분석 후 연구자가 분석한 내용을 한국어를 잘 아는 다문화 영유아 어머니 1인에게 그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질문하여 타당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질적 연구 경험이 많은 간호대학 교수 1인을 통해 자료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 검증과 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쳤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나이는 26~40세였으며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다양하였고, 2명만이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직업이 없었다. 배우자의 나이는 31~48세였으며 학력은 중졸부터 대졸까지 있었고 한 사람은 직업이 없었다. 결혼기간은 1년 9개월부터 9년까지 다양하였으며 자녀수는 1명부터 다섯째 자녀를 임신한 경우까지 다양하였다.

녹음된 자료를 필사하여 연구자가 원 자료를 수차례 반복해서 읽으면서 의미 있는 구절 및 문장을 주의 깊게 살피며 내용을 요약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10개의 범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임신, 출산과 양육을 설명하는 10개의 범주는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는 사회적 지지; 친정에 도움 요청, 사회적 지지: 남편과 시댁에 의존, 낯선 환경에서 입덧을 견뎌냄의 3가지와 양육 관련해서는 과중한 양육부담,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부족,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양육정보와 교육기회 부족/도움 및 교육에 대한 요구, 공공의료에 대한 접근성 부족, 자녀의 한국적 동화 기대, 양육비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 호소로 나타났다.

2. 결혼이민자 영유아 어머니의 경험

임신과 출산 경험

1) 사회적 지지; 친정에 도움 요청

결혼해서 타국으로 떠나왔지만 기댈 곳은 친정뿐으로 특히 산후 간호를 위해 고국에서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해서 몇 개월 같이 머무르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도 오래 머물 수는 없어서 친정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다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 아기 낳고 엄마 와서 3개월 도와줬어요.
- 엄마가 와서 도와줬는데 가시고는 힘들었어요.

Table 1.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Participant (age)	Country of origin	Educational level and employment	Age of spouse	Educational level and employment of spouse	Duration of marriage	Number of children (ages of children)
A (33)	Vietnam	College/ cafeteria	43	College/none	6 yrs	Pregnant with fifth baby & 4 (6 mon, 3, 5, 6 yrs)
B (28)	Vietnam	Middle school	31	High school/ car mechanic	4 yrs	1 (18 mon)
C (40)	Vietnam	High school	47	Middle school/ engineer	9 yrs	2 (7, 9 yrs)
D (37)	China (Korean tribe)	High school/ cafeteria	48	College/ delivery service man	5 yrs	1 (4 yrs)
E (30)	China	High school	34	College dropout/ company employee	4 yrs	2 (24 mon, 32 mon)
F (26)	China	High school	36	College/engineer	1 yr & 9 mon	1 (9 mon)
G (35)	China	High school	39	High school/ company employee	3 yrs & 6 mon	2 (6 mon, 32 mon)
H (29)	China	Middle school	31	College/unknown	2 yrs	1 (10 mon)
I (29)	Vietnam	Middle school	34	College/engineer	4 yrs	2 (2 mon, 3 yrs)
J (29)	Vietnam	Primary school	39	High school/postman	4 yrs	2 (17 mon, 4 yrs)

- 아기 처음에 낳았을 때 엄마가 여기 계시다가 간호해줬어요. 그런데 애기를 구정 전에 낳았어요. 엄마 구정 때문에 집에 가야 하니깐 아기 낳은 지 20일정도 됐는데. 그때 너무 괴로웠어요. 혼자 애기 어떻게 보는지 모르니까. 둘째 임신하고 나서 엄마 다시 오셨어요. 다시 일 년 동안 돌봐줬어요. 둘째 임신 하고 입덧 너무 심한데 애 밥도 해줘야 하니깐 혼자 못하니깐 도와주셨어요. 또 둘째 낳고 아이가 많이 아팠어요. 첫애는 처음에 어떻게 키울지 모르니깐 좀 많이 당황 했어요.

2) 사회적 지지: 남편과 시댁에 의존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의존하고 시댁 식구들도 잘 챙겨주며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경우 임신, 출산 과정에서도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며 특별한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고 남편의 도움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운 경우도 있었다.

- 시누이가 잘해주고 시어머니도 가까이 있어서 어려움 없었어요.
- 애기 태어나서 시어머니 집에서 한 달 지내고 그다음 여기 와서 제가 키웠어요. 어려운거 전화로 물어봐요. 둘째는 저기 베트남에서 엄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 없었어요.
- 제가 밥해 청소해 아빠 회사 일 끝나면 와서 도와줬어요.

3) 낯선 환경에서 입덧을 견뎌냄

임신 초기 입덧은 모든 임부에게 힘든 과정이지만 결혼이민자의 경우 입덧할 때는 더욱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힘들었던 경험들을 갖고 있었다. 스스로 자국의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남편과 자국 요리를 하는 음식점을 다니며 입덧을 달랠 수 있었다.

- 임신 때 한국요리 잘 못 먹어. 중국요리 먹고 싶어

그때 입덧 너무 심했어요. 우리 남편 같이 중국 식당 많이 자주 갔어요.
- 입덧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냥 중국요리 만들어 먹었어요.
- 둘째 임신 하고 입덧 너무 심해서, 큰 애 밥도 해줘야 하니깐 혼자 못하니깐 엄마 와서 도와주셨어요.

양육경험

4) 과중한 양육부담

대상자들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 아기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며, 때로는 돈 버는 일까지 해야 하는 삼중고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남편이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남편은 너무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상황이었다.

- 시간은 진짜로 많이 없어요. 매일 일해. 아기 임신하고도 아기 낳고도 계속 일했어요. 너무 힘들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 아기 낳고도 많이 쉬면 한달 동안 쉬고 또 일하고 계속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든지 일 해야지 생활비 너무 힘들어서…
- 그냥 애기 때문에 아무 친구 못 만나잖아… 힘들어요.
- 아빠는 잘 도와줘요. 근데 시간 없어요. 신랑 바빠요. 일요일날도 일해요.

5)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부족

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이 과연 엄마의 역할을 잘 해내고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을까에 대해 걱정하였으며, 아이들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걱정하였다. 또한 자신이 아이들과 언어소통도 잘 안되고 한국 상황도 잘 알지 못하니 아이들이 엄마 말을 잘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이 느끼기도 하였다. 발달단계 상 엄마 말을 안 듣는 것이 두드러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엄마가 부족한 탓으로 여기는 경향도 보였다.

- 아빠 직장 가서 제가 혼자 집에 있으면 애들 공부 가르쳐주는 거 어려워요.
- 애들이 먼저 '이거 해주세요' 하고 결정해서 애기 해요. 애들이 더 잘 알아서 애들 마음대로 해요.
- 아기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어려워요.
- 우리 애들은 다른 한국 애들이랑 달라요. 내가 말 조금만 하니까 다른 애들보다 고집이 세요. 그거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6)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대상자들은 대부분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바깥 출입 등의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자신이 한국말이 서툴러 자녀와의 의사소통에도 제함이 있음을 걱정하였다.

- 애기 말 좀 많이 가르쳐 주고 싶은데 말 똑바로 못하니깐… 발음도 어렵구요.
- 제가 외국사람 이니깐 한국말로 많이 못해요. 그게 지금 걱정이에요.
- 우리 큰애 작은애 하고 셋째는 다 엄마한테 베트남말로 해요. 근데 작은 애들은 그냥 한국말로 해요.
- 우리 애기 같이 노래했어요. 동화책은 제가 발음 많이 안 좋아서…
-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베트남 말 하는 거 안 좋아해요. 아이가 한국말 못 배운다고…

7) 양육정보와 교육기회 부족/ 도움 및 교육에 대한 요구

처음 부모가 되어 모르는 것도 많지만 물어보거나 도움을 구할 마땅한 사람이 없어 답답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양육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도 느끼니 남편이나 시댁에 물어보아도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우리나라 엄마들과는 달이 인터넷 이용도도 일반적으로 매우 낮았다.

- 아기 키우기에 대해서도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 아기 키우다보면 모르는 것 많이 있어요. 베트남하고 너무 달라요.
- 집에 인터넷 있지만 시간이 없어 볼 수 없어요.
- 지금 아기 다섯번째니깐 지금 너무 힘들어 아기 봐줄 사람도 없어요. 근데 피임 잘 몰라요. 알고 싶어요. 우리는 베트남에서 학교 선생님은 안 가르쳐요. 그럼 우리 아무도 몰라요.
- 배우고 싶은거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기 건강하게 잘 키우고, 어떻게 하면 아기 밥 잘 먹고 건강하고 잘 크고 말도 잘 듣고, 그런 거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8) 공공의료에 대한 접근성 부족

대상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대부분 아이의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경우에도 병원에서 권하는 것을 다 맞으려 하였으며, 거리의 제약과 정보 부족, 서비스에 대한 신뢰 저하 등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 지금도 아기 가져서 보건소 한번은 갔었어요. 근데 영양제 다 떨어져서 안줘요. 그래서 안 갔어요.
- 보건소는 안갔고 그냥 아이 아프면 병원가요.
- 보건소가 멀고 다니기가 어려워요.
- 혼자 밖에 다니지를 못해서... 그냥 동네 병원에 가요.
- 근데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 맞으라고 했는데도 그때도 뭐... 머니깐 가게 안되더라구요.
- 아기 아프면 남편 전화 했다가 시누 불러서 큰 병원 가요. 동네 병원도 가고

9) 자녀의 한국적 동화 기대

자신은 한국 친구나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본국에서 온 친구들 만나기를 좋아하면서도 아이들만큼은 한국에서 크고 살아야 할 사람이므로 한국식으로 크고 한국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 잘 하고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을 나타냈다.

- 한국에서 사니까 한국식으로 키우고 싶어요.
- 한국에서 아기 키우는 거 배워서 인제 여기 적응해야 하니깐
- 동화책도 한국 책으로 읽어줘요.
- 엄마가 한국말 많이 못해서 항상 걱정 많이 해요.
- 공부 잘 해서 의사나 그런 좋은 직업 가졌으면 좋겠어요.

10) 양육비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 호소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은 먼저 경제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결혼생활과 자녀 양육은 생활이므로 기본적인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생활에 대한 기대를 갖고 결혼이민을 온 어머니들은 다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생활고에 허덕여야 한다는 사실과 비싼 생활비, 양육비에 대해 불만과 한숨을 토로하였다.

- 임신 하자마자 병원 가는데 병원에 가면 또 돈을 많이 내잖아요. 검사비도 몇 십 만원씩 너무 비싸요.
- 아기 낳고도 많이 쉬면 한달 동안 쉬고 또 일하고 계속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든지 일 해야지 생활비 너무 힘들어서...
- 경제적으로 국가에서 도와주던가 해야죠.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 아기 키우는데도 돈은 많이 드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벌어도(갚느라고) 계속 모자라요...

Table 2. Foreign Immigrant Mothers' Experiences of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 Rearing

Domain	Main theme
Pregnancy & childbirth	· Social support: request help to their own parents · Social support: depending on husband and mother's in law · Enduring emesis-gravidarum in strange environment
Child-rearing	· Child rearing overburden · Lack of self-confidence on maternal role · Child-rearing difficulties due to language barrier · Lack of information and education on child-rearing · Lack of accessibility to public health care services · Expectation of child's assimilation in Korea · Financial strain in child-rearing

논 의

대부분 아시아계 여성과 한국인 남성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낮은 계층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들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은 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더불어 경제적인 부족함 속에 꿈에 그리던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과는 차이가 많은 현실에 부딪히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혼이민여성 어머니들의 임신, 출산과 양육 관련한 일반적인 경험이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국내 결혼이민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 결혼이민자의 자녀도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사회의 일원임을 감안

하여 최근 2~3년간 정부의 지원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양육을 이해하고 도와주기 위한 간호계의 연구와 실무는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어 관련 연구는 드문 상황이다.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Koh와 Koh (2009)은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경험 중에서도 의료 이용 경험에 대해 심층 면담을 한 결과 열 개의 카테고리를 추출해 내었는데 언어장벽, 경제적 부담, 불충분한 진료시간, 병원이용 절차의 복잡함, 동료집단의 지지부족, 의료인의 차별, 자녀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안감, 언어장벽해소를 위한 의료인의 배려와 친절, 가족의 도움, 선진화된 의료서비스 환경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언어장벽과 경제적 부담, 지지부족, 양육에 대한 정보 부족, 친정부모의 도움 등이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Chung (2010)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자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여섯 개의 대주제를 추출해 내었는데, 어머니됨, 장애에 대항함, 길을 잃음, 방법을 찾음, 수확, 미래를 바라봄들이 있었고, 하위영역 중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 지지의 부족, 한국어 실력의 부족,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부족, 사회적 차별과 편견 등이 본 연구와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결혼이민자 어머니가 호소하는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였지만 그 중 결혼생활과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Chung (2010)의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자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자녀에게 피아노나 태권도를 가르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 힘들게 일하다가 아파서 밤에 병원에 가고 싶어도 병원비가 비싸서 남편이 못 가게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산전, 산후 건강관리에도 경제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Seol (2005)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절반 이상(52.9%)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1/3 정도가 실질적인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고, 대상자의 18%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했음에도 경제적 이유로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고, Koh & Koh (2009)의 연구에서도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많은 이민자 여성들이 의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처럼 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생활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한국에 왔지만 비싼 생활비, 양육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선행연구들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들의 의사소통 제한은 한국생활의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고 자녀양육에의 어려움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어 왔다. 자신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자녀들의 지적 성장이나 언어발달에 영향을 줄까봐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거나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Song, Jee, Cho, & Lim, 2008), 남편이 없으면 아기가 아파도 병원에 가서 아기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고, 의사의 설명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호소하였다(Chung, 2010). 본 연구에서도 언어적 제약이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바깥출입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센터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실에 참여할 수 있고 방문교육을 신청하면 일주일에 두 번씩 한국어 교육을 가정에서 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한국어 강의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 교육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Koh와 Koh (2009)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국어로 통역해주는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역서비스가 아닌 3자 통화 방식의 인터프리터 콜센터를 구축하여 보건소, 병원 등의 간호사들이 결혼이민자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언어소통의 어려움은 나아가 부모로서의 자신감 부족에 영향을 미쳤다. 아이들과 언어소통도 잘 안되고 한국 상황도 잘 알지 못하여 아이들이 엄마 말을 잘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다고 느껴 영유아기의 발달단계 특성상 엄마 말을 안 듣는 것이 두드러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부족한 탓으로 돌리는 등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li (2008)는 어머니들이 양육하는데 있어 자기효능감을 잃게 되면 그들의 사회적, 정서적, 문화적 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하게 되기에 낮은 양육 효능감은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전반적인 어머니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하였다. 낮은 양육 효능감, 자신감은 심리적 불안정감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자녀에게 내면화되어 자녀들 역시 부정적 정서와 행동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Song, Jee, Cho, & Lim, 2008)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데서 오는 자책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

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겠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의 양육정보와 교육기회가 부족하였고 이에 대한 도움 및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선행연구들(Chung, 2008; Song, Jee, Cho, & Lim, 2008)과 유사하게 나타나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가정지원센터, 보건소 등에서 육아정보나눔터, 아기 돌보기나 모유수유와 같은 내용을 산전 부모교실 등이 열리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은 양육 효능감을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Kang, 2009). Chung (2010)의 연구에서는 가정방문을 통한 자녀 돌보기 프로그램, 정보제공, 개별적 상담 프로그램과 같은 서비스가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지를 남편으로부터 받고있어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사회적 지지원인 '남편,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Kang과 Lee (2010)의 다문화가정의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결과 부모 효능감, 자아존중감, 배우자나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녀들의 한국적 동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자신의 자녀들이 한국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내면에는 자녀가 부당한 대우와 왕따를 경험하지 않고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하며 성장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있을 것으로 사료된다(Song, Jee, Cho, & Lim, 2008). 이민자 여성의 문화적응이 높은 경우 더 적절한 양육을 하며 양육 효능감이 높으며 새로운 문화에서의 양육 전략을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Yaman et al., 2010; Kim, Cain, & Webster-Stratton, 2008).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화적 차이를 가진 소수 민족이나 이민자 가정의 아동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데, 특히 영아의 성장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산후우울(Adewuya, Ola, Aloba, Mapayi, & Okeniyi, 2008; Avan, Richter, Ramchandani, Norris, & Stein, 2010)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서 Dennis와 Ross (2006)는 남편이 문제중심의 정보적 지지를 주는 경우 산후우울이 낮음을 보고하면서 간호사는 산전교육을 통해 남편과의 의사소통 방법 및 아이돌보기에 대해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호주에 이민 온 태국 어머니들에 대한 연구(Liamputtong & Naksook, 2003)에서도 이민 여성들이 경험하는 어머니 역할과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해야만 그들에게 더 나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간호사는 문화적, 인종적 차이, 남편과의 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해 새로운 변화에 직면한 어머니들의 양육을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이 문화적 적응을 잘 해나감과 동시에 건강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 주기위해서 간호교육 및 간호실무자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소수민족에 대한 존중 및 배려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해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임신, 출산 및 영유아 양육 경험을 기술한 내용분석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수원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 10명이다.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임신과 출산 및 영유아 양육 경험으로 10개의 범주-임신과 출산 관련해서는 사회적 지지; 친정에 도움 요청, 사회적 지지: 남편과 시댁에 의존, 낯선 환경에서 입덧을 견뎌냄의 3가지와 양육 관련해서는 과중한 양육부담,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부족,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양육정보와 교육기회 부족/ 도움 및 교육에 대한 요구, 공공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한, 자녀의 한국적 동화 기대, 양육비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 호소-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수원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결혼이민자의 본국인 중국과 베트남 여성에 한정되어 다른 국가의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또한 면담 시 한국어로 대화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참여자의 말 중 이해가 안 되거나 설명이 필요로 되는 부분은 재질문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감정표현과 정서적 의미전달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여성의 양육 경험에 대한 연구는 몇몇 연구에 불과하여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임신과 출산 및 영유아 양육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후속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수의 농촌 지역이나 도시 근로자 가족의 결혼이민자들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고 보건의료혜택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므로 간호사에게도 이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대변할 책임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임

신, 출산, 양육, 피임 대한 교육기회를 더욱 늘리고, 한국어 이해가 낮은 대상자들을 고려하여 자국어로 번역된 교육자료 개발이 필요하며, 공공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대상자들을 스크리닝하고, 그들을 위한 맞춤형 가정방문서비스 등의 개발과 그 효과를 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Adewuya, A. O., Ola, B. O., Aloba, O. O., Mapayi, B. M., & Okeniyi, J. A. (2008). Impact of postnatal depression on infants' growth in Nigeria.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08*(1-2), 191-193.

Ali, M. A. (2008). Loss of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immigrant parents. *Contemporary Issues, 9*(2), 148-160.

Avan, B., Richter, L. M., Ramchandani, P. G., Norris, S. A., & Stein, A. (2010). Maternal postnatal depression and children's growth and behaviour during the early years of life: Exploring the interaction between physical and mental health.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95*, 690-695.

Chung, D. (2008). A study of childhood education in Korean immigrant-mother family.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7*, 243-256.

Chung, H. I. C. (2010). Child rearing experiences of foreign wives married to Korean husbands. *Asian Nursing Research, 4*(2), 75-89.

Dennis, C. L., & Ross, L. (2006). Women's perceptions of partner support and conflict in the development of postpartum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6*, 588-599.

Downe-Wamboldt, B. (1992). Content analysis: Method, application, and issue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3*, 313-321.

Kang, K. J., & Lee, Y. J. (2010). The development and analysis of the effect of educational programs for fa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4), 89-101.

Kang, K. J. (2009). A study on parent coaching experience for strengthening parent skills of multicultural family wom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3), 111-125.

Katz, D., & Gagnon, A. J. (2002). Evidence of adequacy of postpartum care for immigrant women. *The Canadia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34*(4), 71-81.

Kim, E., Cain, K. C., & Webster-Stratton, C. (2008). The preliminary effect of a parenting program for Korean American mothers: A randomized controlled experiment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5*, 1261-1273.

Kim, O. N. (2006). A study on marital conflicts and abuse of immigrant women-focusing on socio-cultural variabl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8*, 33-76.

Koh, C. K., & Koh, S. K. (2009). Married female migrant's experiences of health care servic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1), 89-99.

Liamputtong, P., & Naksook, C. (2003). Life as mothers in a new land: The experience of motherhood among Thai women in Australia.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24*, 650-668.

Seol. (2005). *Foreign wives' life in Korea: Focusing on the policy of welfare and health.*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ong, M. K., Jee, S. H., Cho, E. K., & Lim, Y. S. (2008). A study on the parental experience of a foreign mother in a multicultural famil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 497-517.

Statistics Korea. (2006). Population statistics.

Statistics Korea. (2008). Population statistics.

Stuchbery, M., Matthey, S., & Barnett, B. (1998). Postnatal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s in Vietnamese, Arabic and Anglo-Celtic mother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3*, 483-490.

Sword, W., Watt, S., & Krueger, P. (2006). Postpartum health, service needs, and access to care experiences of immigrant and Canadian-born women.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35*, 717-727.

Yaman, A., Mesman, J., IJzendoorn, M. H., & Bakermans-Kranenburg, M. J. (2010). Perceived family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child externalizing behaviors in second-generation immigrant mother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5*, 505-512.

Yang, O. K., & Kim, Y. S. (2007). A study on the effects of depressiveness among foreign wives through marriage migr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26*, 79-110.

Yang, S. M. (2006). Adjustment and an aspect of family life of the rural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focusing on the Chines (Korean tribe), Japanese, and Philippine immigrant woman and their's husband.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16*, 151- 179.